

농어촌공, 공공·민간 협력 ‘호숫길 쓰담 쓰담’

캠페인 통해 ESG경영 확산

- 공공기관·협력사·시민과 함께 ESG 가치 나눠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8일 오후 나주 한수제에서 빚가람 ESG 협의회 공공기관, 협력사, 시민과 함께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쓰담: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동참을 위한 둘레길(호숫길) 쓰레기 줍기 캠페인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캠페인은 공사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공사 대표 친환경 ESG 캠페인으로, 상반기에만 누적 참여자 수가 2만 7천여명에 달할 만큼 높은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에는 참여 대상과 지역을 확대 진행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쓰레기를 담으며 플로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플로깅(Plogging): ‘이삭을 줍는다’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사 직원을 비롯해 빚가람 ESG 협의회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협력사, 시민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여 한수제 일대의 버려진 쓰레기를 담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도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의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ESG 가치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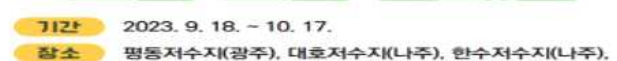
공사는 전국의 본부, 지사 등 전사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남지역 저수지 12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기획관리실	책임자	부 장	김정은 (061-338-5191)
	ESG혁신부	담당자	대 리	이훈지 (061-338-5198)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캠페인

기간 2023. 9. 18. ~ 10. 17.

참소 평동저수지(광주), 대호저수지(나주), 한수저수지(나주),
승월저수지(여수), 연봉2저수지(고흥), 금전저수지(화순),
서성저수지(화순), 광주호(담양), 금강저수지(해남),
불갑저수지(영광), 장성호(장성), 금계리 해안(진도)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깨끗한 호수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경품 받아보세요!

행사기간?

행사장소

참가대상

참여방법

인원제한

참가비용

2023. 9. 18. ~ 10. 17.

전라남도 내 호수(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호숫길 쓰담(쓰레기 담기, 물통길)에 참여하는 누구나

호숫길 주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 후 인증 사진 촬영

워크는 앱 또는 각 기관 SNS

추첨을 통해 커피ギフト券 지급(300명)

워크앱 참여절차

① 등록



워크앱 다운로드

② 촬영



호수 주변
쓰레기 촬영

③ 인증



워크앱 내
인증서 발급
사진 업로드

④ 경품



경품 받기

각 기관 SNS 참여절차

① 등록



호수 주변
쓰레기 촬영

② SNS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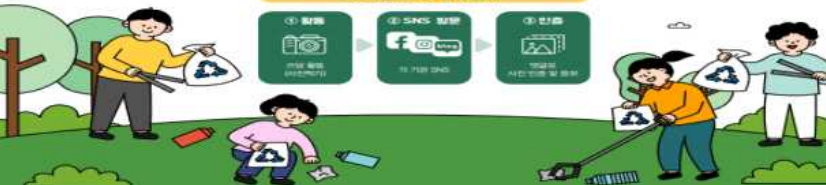


각 기관 SNS

③ 인증



워크앱
사진 업로드



 전라남도청

 전라남도농어촌개발사업본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수산식품진흥회